

D1001 채권형(VUL종신)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채권형(VUL종신)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위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위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삼성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 명칭	채권형(VUL종신)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58704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6.07.24
운용기간	2020.10.01 ~ 2020.12.31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목적은 주로 국공채, 특수채, 그리고 제한된 수량의 우량등급의 회사채에 투자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자본 이득과 이자 수익을 달성함에 있습니다.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등에 투자 합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채권형(VUL종신)	자산 총액 (A)	35,196	35,671	1.35
	부채 총액 (B)	21	23	11.08
	순자산총액 (C=A-B)	35,175	35,647	1.34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23,518	24,073	2.36
	기준가격 (E=C/D×1000)	1,495.68	1,480.83	-0.99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지난 4분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드는 모습을 나타내다 11월에 들어서면서 다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국채금리는 강기를 위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미 2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올해 국고채 발행량이 크게 증가하여 채권 시장에 수급적인 부담이 큰 상황이었는데, 4분기 중 일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 진입함과 동시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결정되자 다시 국고채 발행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발생, 강기를 위주로 금리가 상승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전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으나 정부가 재정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12월부터 영국을 필두로 주요 선진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 속에서 코로나 확산 속도는 아직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국들의 정부주도의 부양책이 확대되는 분위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대선이 있었는데, 바이든 중심의 민주당이 사실상 상임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이른바 블루 웨이브가 예상됩니다. 다만, 지금은 대통령 변화에 따른 정책적인 이슈보다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슈에 대한 반응이 훨씬 더 큰 분위기로 판단됩니다. 펀드는 4분기 중 비교지수 대비 펀드 듀레이션을 확대 운용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펀드의 성과가 비교지수를 하회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펀드의 크레딧 채권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는 지난 12월부터 크레딧 스프레드(회사채와 국고채의 금리 차이)가 축소되면서 펀드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금융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 조지아 주의 선거에서 상원의원 2명이 모두 민주당에서 선출되어 블루웨이브(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가 형성되었다는 점과, 코로나19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최근 주식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또는 우려가 자산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점을 나타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채권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금리 상승이 이러한 가능성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동시에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크레딧 스프레드의 축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동 펀드는 비교지수 수준의 듀레이션을 유지함과 동시에 크레딧 채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펀드 수익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채권형(VUL종신)	-0.99	-0.66	0.06	0.78
(비교지수 대비 성과)	(-0.13)	(-0.27)	(-0.58)	(-0.73)
비교지수(벤치마크)	-0.86	-0.39	0.64	1.51

*비교지수(벤치마크): KIS종합채권지수 X 95% + CALL X 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채권형(VUL종신)	0.78	2.80	5.47	6.93
(비교지수 대비 성과)	(-0.73)	(-1.51)	(-2.40)	(-3.76)
비교지수(벤치마크)	1.51	4.31	7.87	10.69

*비교지수(벤치마크): KIS종합채권지수 X 95% + CALL X 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0	153	0	0	1	0	0	0	0	2	-41	115
당기	0	-312	0	0	0	0	0	0	0	2	-44	-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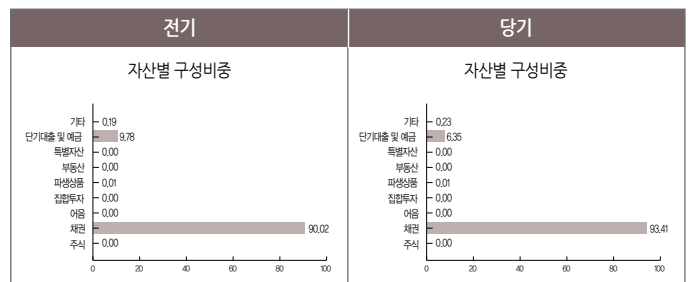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1.00)	0	33,321	0	0	2	0	0	0	0	2,266	82	35,671
	(0.00)	(93.41)	(0.00)	(0.00)	(0.01)	(0.00)	(0.00)	(0.00)	(0.00)	(6.35)	(0.23)	(100.00)
합계	0	33,321	0	0	2	0	0	0	0	2,266	82	35,671

* () : 구성비중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채권 롯데캐피탈370	9.08	6	채권 국고채이자03600-2203	6.95
2	채권 아이비케이캐피탈224-4	9.04	7	단기상품 은대(우리은행)	6.35
3	채권 국고01500-5003(20-2)	7.85	8	채권 국민주택1종16-05	6.03
4	채권 신한금융투자131-2	7.12	9	채권 국고00875-2312(20-8)	5.59
5	채권 케이비국민카드309-3	7.05	10	채권 우리카드184-1	4.78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채권

(단위 : 백만원,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국가	통화	발행일	상환일	보장기관	신용등급	비중
롯데캐피탈370	3,200	3,239	대한민국	KRW	2019-05-10	2022-05-10		AA-	9.08
아이비케이캐피탈224-4	3,200	3,224	대한민국	KRW	2020-11-11	2024-05-10		AA-	9.04
국고01500-5003(20-2)	3,010	2,799	대한민국	KRW	2020-03-10	2050-03-10		N/A	7.85
신한금융투자131-2	2,500	2,538	대한민국	KRW	2020-02-06	2025-02-06		AAA	7.12
케이비국민카드309-3	2,500	2,516	대한민국	KRW	2020-07-29	2023-11-29		AA+	7.05
국고채이자03600-2203	2,500	2,478	대한민국	KRW	2007-04-17	2022-03-10		N/A	6.95
국민주택1종16-05	2,000	2,149	대한민국	KRW	2016-05-31	2021-05-31		N/A	6.03
국고00875-2312(20-8)	2,000	1,996	대한민국	KRW	2020-12-10	2023-12-10		N/A	5.59
우리카드184-1	1,700	1,706	대한민국	KRW	2020-11-30	2024-05-30		AAO	4.78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우리은행	2010-04-01	2,265	0.23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사장	41	78	2,646,562			2119000125
이대석	차장	38	78	2,646,562			2120001220
김태현	과장	37	78	2,646,562			2119000109
최명혁	사원	28	78	2,646,562			2119000110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20.09.17 ~ 현재	이대석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19.01.24 ~ 현재	최명혁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4	0.01	4	0.01
판매회사	34	0.10	35	0.1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1	0.00	1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1	0.00	2	0.00
보수합계	41	0.12	42	0.12
기타비용	0	0.00	2	0.01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0	0	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수수료	0	0	0.00
	합계	0	0	0.00
증권거래세	0	0.00	0	0.00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4895	0.0032	0.4927
당기	0.4843	0.0025	0.4868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